

광주FC 우승 이끈 박진섭, 감독상 수상



2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어워즈 2019'가 끝난 뒤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평국(광주 FC), 조규성(FC 안양), 김상원(FC 안양), 호물러(부산 아이파크), 김문환(부산 아이파크), 이동준(부산 아이파크), 이도뜸(광주 FC). /연합뉴스

‘하나원큐 K리그2 어워즈 2019’

“특별한 능력 만들어 준 선수들과 영광 함께 하고 싶어” 광주FC 아술마토프·이도뜸·윤평국 ‘베스트 11’ 영예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측면 공격수 이동준(22)이 2019시즌 K리그2(2부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베스트 11의 영예를 한꺼번에 안았다.

이동준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2 MVP로 선정됐다.

이동준은 이번 시즌 K리그2 무대에서 37경기(정규리그 36경기·플레이오프 1경기)에 모두 출전해 13득점·7도움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동준은 MVP뿐만 아니라 K리그2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이날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K리그2 베스트 11에는 조규성, 치숨(이상 공격수 부문), 이동준, 호물러(부산), 알렉스(안양), 김상원(안양·이상 미드필더 부문), 아술마토프, 이도뜸(광주), 김문환(부산), 닐슨주니어(부천·이상 수비수 부문), 윤평국(광주·골키퍼)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10도움을 기

록한 정재희(전남)가 최다도움상을 받았고, 올해 19골을 몰아치면서 광주FC의 K리그2 우승을 이끈 펠리페가 최다 득점상의 주인공이 됐다.

K리그2 감독상은 광주FC의 우승을 지도하며 1부리그 승격을 이끈 박진섭 감독에게 돌아갔다.

박진섭 감독은 감독 투표(7표), 주장 투표(8표), 미디어투표(83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84.22점을 얻었다. 박 감독은 “작년 시상식에 왔을 때 ‘언제쯤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상을 탈지 못했다”라며 “가족과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준 선수들과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하나원큐 K리그2 어워즈 2019’에서 K리그2 감독상을 수상한 광주 FC 박진섭 감독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광주FC 제공



황희찬의 골 알리진 찰초부르크. /인스타그램 캡처

황희찬, 2경기 연속 골 팀, 리그 16경기 무패 견인

황희찬(23·찰초부르크)이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2019~2020시즌 9호 골을 기록해 두 자릿수 득점을 눈앞에 뒀다.

황희찬은 2일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처스도르프의 BSFZ-아레나 열린 아드미라와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동점 골을 터뜨려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이번 시즌 전체 황희찬의 9호 골이자, 리그에서는 6호 골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헝크(벨기에)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 이어 최근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팀이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다니던 후반 32분 미나미노 다쿠미의 패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문을 열었다.

황희찬의 ‘천금 동점 골’에 힘입어 찰초부르크는 개막 이후 16경기 무패(12승 4무)로 리그 선두(승점 40)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KIA 타이거즈 ‘사랑의 쌀’ 나눔 행사. /KIA 타이거즈 제공

“팬들에게 받은 사랑, 온정 나눔으로…”

KIA, 7일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쌀’…6일에는 ‘사랑의 기금’ 전달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들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임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3천160kg 전달식을 개최한다.

‘사랑의 쌀’은 임동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이 올 시즌 운영한 물품보관함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마련했다. 여기에 구단 후원업체인 키스코(대표 김원범)는 400만원을 후원했다.

이어 선수단은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를 돕기 위해 일일호프를 연다. KIA 타이거즈 선수 상조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2시(자정)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홍타워 1층 ‘밀탑(구 P&J 웨딩홀)’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연다. 단,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류 판매도 하지 않는다.

이번 일일호프에서 선수단은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며 포도 타임과 선수단 애장품 경매 행사, 사인회를 통한 모금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선수들은 또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 올 시즌 동안 적립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친다.

내야수 박찬호는 오는 6일 밝은 안과21병원 김근오 원장 등과 함께 동구 소태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원장 강춘식)를 찾아 ‘사랑의 기금’ 등을 전

달한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2019시즌 동안 양현종, 최형우, 유민상, 박찬호, 박준표, 윌랜드가 수상한 밝은안과 21병원 월간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KIA 에이스 양현종은 선수단을 대표해 “한 시즌 동안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수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비록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영화 코치의 패우를 바라며 올해도 선수들이 모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팬들이 찾아와 코치님이 쾌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2020년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태극마크를 단 한승철(전남체육회·왼쪽에서 세번째)과 양연수(전남도청·왼쪽에서 네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양연수, 태극마크 부활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 준우승…부상 극복 1년 반만에 복귀

한국 여자 스쿼시 최강자 양연수(전남도청)가 국가대표로 재발탁됐다. 양연수는 지난달 29일 청주국제스쿼시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2020년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6승1패로 준우승을 거두며 1년 반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탈게 됐다.

지난해 5월 고질적인 허리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퇴촌한 양연수는 치료에 매진하면서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 개회전 2연패를 노렸다. 하지만 양연수는 8강에서 탈락했다.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양연수는 오뎅이처럼 일어섰

다. 전남스포츠클럽센터의 밀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허리부상을 극복하며 마침내 태극마크로 부활했다. 양연수는 “1년 반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허리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전남스포츠클럽센터의 밀착지원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회 소속 한승철도 남자부 8강 리그에서 우창욱(전북스쿼시연맹)과 함께 공동 1위에 오르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박희중 기자

이혜진, 한국 최초 월드컵 여자 경륜 ‘金’

사이클 국가대표 이혜진이 한국 최초로 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여자 경륜 금메달 패거리를 이뤘다.

한국 여자 단거리의 간판 이혜진은 1일 홍콩에서 열린 2019~2020 국제사이클연맹(UCI) 제3차 트랙 사이클 월드컵 여자 경륜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소바 리우보프, 일본의 고바야시 유카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혜진의 라이벌이자 여자경륜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홍콩의 리와이즈도 결승에 올랐지만 5위에 머물렀다. 극적인 우승이었다.

이혜진은 예선 2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무난하게 2차전에 진출하는 듯했지만, 규정 위반으로 강등되면서 패자부활전을 치러야 했다.

패자부활전에서 3조 1위로 다시 2차전 기회를 잡은 이혜진은 2차전에서 리와이즈 등을 제치고 조 1위에 오르며 결승에 안착했고, 결승전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2001년 조호성과 2011년 나야름이 장



이혜진이 2일 열린 2019~2020 국제사이클연맹(UCI) 제3차 트랙 사이클 월드컵에서 한국 최초의 월드컵 여자 경륜 금메달 패거리를 이뤘다. 사진은 이혜진과 엄인영 사이클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자전거연맹 제공

거리 종목인 포인트레이스에서 트랙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지만, 여자 경륜에서 월드컵 금메달이 나온 것은 국내 최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이번 대회 나야름·이주미·강현경·장수지가 한국 여자 단체추발 최초의 월드컵 메달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정선희 감독·서석규 코치 체제 출범

나주시청 사이클 재도약 ‘박차’

나주시는 2일 “최근 직강운동경기부 사이클 팀 새 감독에 정선희(44·여)씨, 신임 코치에 서석규(36)씨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28년 간 사이클 팀을 이끌었던 양재환 감독이 지난 7월 퇴임하면서 감독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던 정선희씨는 정식 감독으로서 사이클 최강팀 명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장 감독은 2009년 나주시청 사이클 팀 코치로 인연을 시작해 제97회 전국체전 사이클 스크래치 부문 우승, 제99회 전국체전 동일 부문 준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가,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로 한국 여자대표팀 총목 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8년 한 해를 빛낸 최고의 여성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여성체육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장선희 감독은 “양재환 감독님의 뒤를 이어받아 나주시청 사이클 팀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경기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새로운 결기와 다짐을 통해 나주시청이 다시 전국 최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치진과 함께 선수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포력했다.

장 감독과 호흡을 맞출 서석규 코치는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2014년까지 선수로 활동하다 2016년부터 나주 다지중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나주 빛가람중학교 사이클팀을 지도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여자중부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해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장선희 감독은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4관왕을 차지했던 나야름 선수를 학창시절 지도했고 양재환 전 감독과 함께 나주시청 사이클 팀을 명문 반열에 올려놓은 실력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라며 “정식 감독으로서 코치, 선수들과의 조화를 통해 사이클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